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투자 검토

롯데케미칼(대표 허수영)은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공장 건설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설립을 비롯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05>